

Global IT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e-Readiness of Korean Economy

한국의 글로벌 IT산업 경쟁력과 이비즈니스 준비도

Kyung-Hye Park^a

박경혜^a

^a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7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Tel: +82-42-821-5578, Fax: +82-42-823-5359, E-mail: kpark@cnu.ac.kr

Abstract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digital economy era, does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for the country's administrative management innovation but also for the business and for the everyday life. Specifically, the e-business for the company or organization is defined as "using the Internet and IT, rescheduling of business process management activities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anks to the Korea's recent efforts, overall level of informatization and digitalization is able to receive high praise. But the e-business readiness (e-readiness) level is still expected a lot of room for improvement. In this paper, I try to analyze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Korea's by the EIU's e-business readiness index and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to prepare a full-scale e-business era of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any preparation that could do to improve the situation from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Keywords:

e-Business, e-Readiness index, IT competitiveness

서론

디지털 경제 시대에 IT의 활용은 국가경영에서부터 기업의 관리와 개인의 일상에 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의 e-비즈니스는 "IT를 이용하여 구매-제조-유통-판매-서비스로 이어지는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재조정하여 경영관리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계획적으로 조직된 혁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12]

첫째, e-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또는 전자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기업과 산업에 응용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 혹은 산업의 전 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e-비즈니스를 새로운 유통채널로

해석하거나 기업 경영의 일부를 전자화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매, 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 혹은 외부 기업과 연결되는 가치사슬의 재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e-비즈니스는 혁신활동이다. 따라서 단순한 원료의 조달과 생산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조직, 기업문화, 기업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과 변화를 함께 요구한다.

e-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e-비즈니스를 통해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e-비즈니스라는 거래 형태 혹은 사업 유형(혹은 혁신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의미는 흔히 e-비즈니스의 국제화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e-비즈니스는 이제 더 이상 한 지역,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유형이 아니므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e-비즈니스의 국제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통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국제규범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IT 산업 경쟁력과 IT 활용 수준을 평가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 IDC의 정보사회지수(ISI), 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NRI), ITU의 디지털 기회지수(DOI), UN의 전자정부준비지수 등과 함께 EIU의 IT산업경쟁력지수와 e-비즈니스 준비도(e-Readiness Rankings)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EIU의 IT산업 경쟁력 지수와 e-비즈니스 준비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대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과 IT 활용 수준을 비교 평가하고, 지난 몇 년 간의 변화추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T 선진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IT 산업 경쟁국과 e-비즈니스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각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해 분석하고, 각 지표의 데이터 수집방법에 대해 확인하며, 둘째, 한국 및 비교대상국가의 기본통계와 평가결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셋째, 추세분석과 국가간 비교분석을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분석자료들을 종합하여 국가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의 정보화 수준 평가

[blank line]

한국전산원이 1993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보화 수준이 1995년 22위에서 2007년 3위로, 2008년 8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정보 인프라와 정보화 현황을 여러 조사기관에서 파악하는 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1] 한국의 정보화 수준 평가

구분	조사 기관	순위	전년도 대비 향상도	조사 대상국 수	발표 연월
전자정부 준비지수 ¹⁾	UN	6	1(▽)	182	2008.1.
e-비즈니스 준비도 ²⁾	EIU	15	1(△)	70	2008.4.
네트워크 준비지수 ³⁾	WEF	9	10(△)	127	2008.3.
디지털 기회지수 ⁴⁾	ITU	1	=	181	2007.5.
국가정보화 지수 ⁵⁾	NIA	8	5(▽)	50	2008.8.

[자료 인용]

- 1) UN,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8'
- 2) EIU, 'The 2008 e-readiness Rankings'
- 3)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
- 4) ITU,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 5) 정보사회진흥원, '2008 국가정보화백서'

각각의 조사보고서에 제시하는 한국의 정보화 추진 현황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ITU가 평가하는 디지털기회지수(DOI) 경우 최근 매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준비지수에 의하면 웹 수준 지수, 인프라 지수, 인적 자본 지수에서 골고루 최상위권을 차지하여 종합 6위로 평가되었으며 미국과 북유럽국가들이 한국보다 우수한 준비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IU 조사 e-비즈니스준비도의 경우 그 평가지표와 가중치가 2008 년도에 일부 변경되어 ① 접속성과 기술 인프라 지수 20%, ② 비즈니스 환경 15%, ③ 사회적, 문화적 환경 지수 15%, ④ 법적 환경 지수 10%, ⑤ 정부정책과 비전 지수 15%, ⑥ 소비자 및 기업 채택 지수 25%로 구성된다. 미국과 북유럽국가들,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본 논문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WEF가 발표하는 네트워크준비지수는 ① 시장, 규제, 인프라 등의 환경, ② 개인, 정부, 기업의 준비도, ③ 개인, 정부, 기업의 이용 지수로 평가되는데 한국은 평가결과가 올해 크게 향상되어서 9 위로 나타났으며 역시 미국과 북유럽국가들, 싱가포르와 스위스만이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ITU의 디지털기회지수(DOI) 경우 기회제공, 인프라 보급, 활용도 등의 지수에 대해 분석되는데 전년에 이어 계속 최상위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정보화지수는 ITU의 국제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분석되는데 컴퓨터, 인터넷, 통신, 방송 부문에 세부 지표와 목표치를 두고 종합적으로 산출한다. 이에 의하면 작년 3위에서 올해 8위로 평가되었다. 세계 최상위의 인터넷 지수를 제외하고 다른 부문은 최상위 국가들과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e-비즈니스 준비도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IT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따라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산업부문에서의 IT 활용 현황과 국제적으로 e-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e-비즈니스 준비도'(e-Readiness) 경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0년도부터 각국의 'e-Readiness'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국가의 정보화 수준 평가와 산업부문의 IT 활용도 평가에 이 지수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 지수의 향상을 곧 정책의 성공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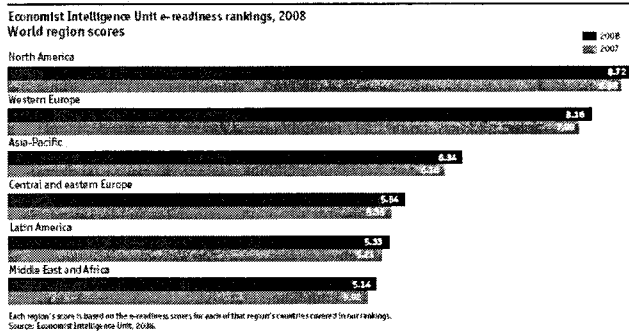
평가 모델

EIU의 지수는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요 70개국에 대한 e-비즈니스 준비도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한 국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활용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평가모델은 약 100가지 요소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발전 정도를 각각 측정하게 된다. e-준비도에는 단순히 컴퓨터의 대수나 네트워크 연결환경, 휴대전화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술 사용 숙련도, 비즈니스와 법적 시스템의 투명성,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평가 결과

세계의 권역 별 순위와 수준을 비교한 [그림1]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준비도가 높고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뒤를 잇고 있다.



EIU(2008), "The 2008 e-readiness rankings", The Economist(<http://www.eiu.com>)

[그림1] 세계 권역 별 e-준비도 순위와 수준 비교

각국의 각 지표에 대한 성과는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인 접속성에 대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인터넷 활용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접속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이며 안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도 더 이상 광범위한 디지털 정책을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략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국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 홍콩과 싱가포르와 호주 등이 우수한 지수를 갖고 있으며 한국보다 평가결과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국가들의 순위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예외적으로 독일이 19위에서 15위로 향상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그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몇몇 나라들은 성과가 후퇴하기도 하였다.

비교대상국들의 e-준비도 비교

EIU가 발표하는 'e-준비도' 순위는 각국의 e-비즈니스 환경을 측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EIU는 이러한 'e-준비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해마다 측정결과를 발표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의 발표에 따르면 교역이 많은 동북아시아 지역 주변국들과 미국 등 경쟁국의 'e-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교대상국의 e-준비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2] 2006-2008 e-비즈니스 준비도 비교

국가	순위				전체지수 (10 점 만점)
	2008	2007	2006	비교	
미국	1	2	2	1(△)	8.85
홍콩	2	4	10	8(△)	8.72
싱가포르	6	6	13	7(△)	8.60
한국	15	16	18	3(△)	8.08
일본	18	18	21	3(△)	8.01
중국	56	56	57	1(△)	4.43
러시아	59	57	52	7(▽)	4.27

한국은 조사대상 70개국 중에 15위로 전체 지수가 10점 만점에 8.08점으로 평가되었고 작년에 비해 소폭의 향상이 있었다. 1위 미국과 비교하여 전체 지수에 큰 차이가 있으나 매년 순위와 지수가 꾸준히 향상하고 있는 편이다. 동북아 주변국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순위와 지수를 가지고 있으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아직 준비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경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홍콩과 싱가포르의 순위와 지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며 실제로 순위는 56위에 머물고 있으나 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평가 지표 별 성과

매년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하지 않았다,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정치적, 상업적, 법적, 사회적 환경과 그들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서 경제 발전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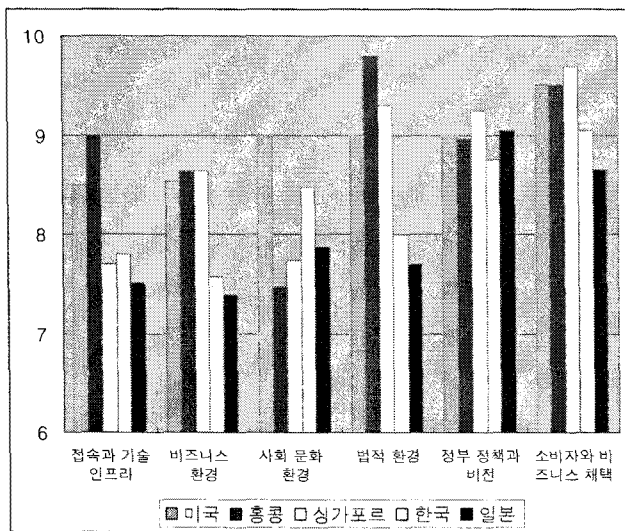
e-준비도 조사 대상 70개국 중에 한국은 소비자 and 비즈니스 채택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비즈니스 환경 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순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수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은 기술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법적 환경이며 정부의 정책과 비전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면 새로이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3] 2008 e-비즈니스 준비도 세부지수 비교

국가	전체 지수	세부지수					
		접속과 기술 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사회 문화 환경	법적 환경	정부 정책과 비전	소비자와 비즈니스 채택
		20%	15%	15%	10%	15%	25%
미국	8.95	8.50	8.53	9.00	9.00	9.00	9.50
홍콩	8.91	9.00	8.64	7.47	9.80	8.95	9.50
싱가포르	8.74	7.70	8.64	7.73	9.30	9.25	9.70
한국	8.34	7.80	7.57	8.47	8.00	8.75	9.05
일본	8.08	7.50	7.39	7.87	7.70	9.05	8.65
중국	4.85	3.60	6.49	5.53	3.90	4.90	4.80
러시아	4.42	4.10	6.19	5.33	4.20	2.85	4.10

전반적으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미국에 비해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거나 부족한 세부지수들이 있으므로 각국이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것이다. 예컨대 홍콩의 경우 매우 우수한 법적 환경에 비해 사회 문화적 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림2] 국가별 세부지수 비교

비교대상국들의 e-준비도 변화 추세

비교대상국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으로 한정하여

각국의 순위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역시 모두가 e-비즈니스 준비도 순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2004년 14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비교대상국들은 지난 5년간 모두 순위가 상승하였다.

[표4] 비교대상국의 e-비즈니스 준비도 순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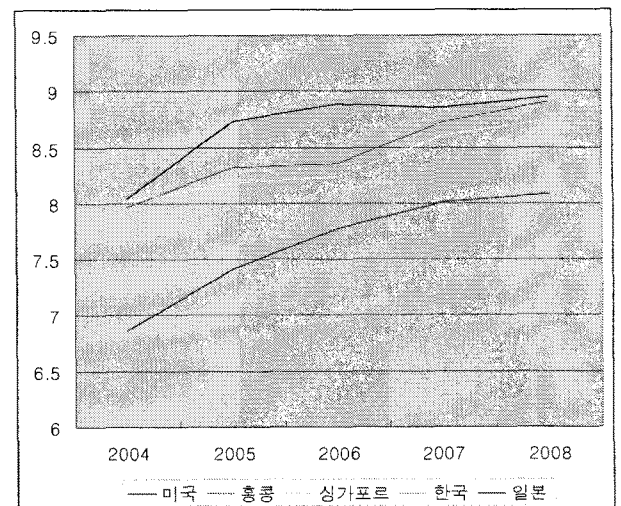
연도	2008	2007	2006	2005	2004
대상국 수	70	69	68	65	64
미국	1	2	2	2	6
홍콩	2	4	10	6	9
싱가포르	6	6	13	11	7
한국	15	16	18	18	14
일본	18	18	21	21	25

한편 각국의 지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역시 모두가 e-비즈니스 준비도 지수가 향상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04년 7.73에서 2008년 8.34로 상승하였으며 비교대상 국가 모두가 지난 5년간 모두 지수가 향상되었다.

[표5] 비교대상국의 e-비즈니스 준비도 지수 변화

	2008	2007	2006	2005	2004
미국	8.95	8.85	8.88	8.73	8.04
홍콩	8.91	8.72	8.36	8.32	7.97
싱가포르	8.74	8.60	8.24	8.18	8.02
한국	8.34	8.08	7.90	7.66	7.73
일본	8.08	8.01	7.77	7.42	6.86

5년간의 지수변화 추이를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향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e-비즈니스 준비도 지수 변화 추세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

영국의 EIU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함께 각국의 IT 산업 경쟁력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도 e-비즈니스 준비도 순위와 함께 매우 중요한 평가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평가 모델

EIU의 IT 산업 경쟁력 지수는 IT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66개국에 대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IT 인프라, 인적 자원, 법적 환경, R&D 환경, 그리고 IT 산업 개발 지원의 카테고리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카테고리는 세부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지표는 가중치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지수의 세부 지표로는 외국 자본에 대한 정부 정책, 재산권 보호, 창업 관련 정부 규제와 자유경쟁 보장 등이 포함된다. IT 인프라 관련 세부 지표로는 IT S/W, H/W, 서비스 시장과 컴퓨터 보급률, 광역망과 서버 보급 정도가 포함되며 인적 자원 지수의 세부 지표로는 고등교육 이수 학생수와 기술 인력, 기술자의 비즈니스 교육 수혜 가능성 등이 들어있다. 법적 환경 지수의 세부 지표로는 IP 등록과 전자서명 관련 법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스팸 방지,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여부가 포함되며 R&D 환경은 인구 100명당 정부의 R&D 예산 규모, 사기업의 R&D 지출 규모, IT 특허권 등록 수 및 기술이전 수입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IT 산업 개발 지원의 카테고리에는 국내외 자본 투자, 전자정부 전략, IT S/W, H/W, 서비스에 대한 정부 투자와 공공 정책 유무가 세부 지표로 포함된다.

평가모델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IT 산업 경쟁력 수준을 측정하게 된다.

비교대상국들의 IT 산업 경쟁력 비교

EIU가 발표하는 IT 산업 경쟁력 순위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을 측정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EIU는 각국의 IT 산업을 벤치마킹 하고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을 개발하여 해마다 측정결과를 발표하는데 2006년부터 2008년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 영국 등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에 IT 산업 경쟁력이 전년도 3위에서 8위로 하락하였으며 일본 역시 2위에서 12위로 크게 하락하였다. 모바일 기기 등 일부 분야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핀란드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에 추월 당한 상황이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 듯 하다.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경쟁력 저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련 산업부문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IT 산업 발전에 힘입은 경제 성장도 그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비교대상 IT 선진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6] 2006-2008 IT 산업 경쟁력 비교

국가	순위				전체지수
	2008	2007	2006	비고	
미국	1	1	1	=	74.6
대만	2	6	6	4(△)	69.2
영국	3	4	4	1(△)	67.2
한국	8	3	3	5(▽)	64.1
일본	12	2	2	10(▽)	62.2
핀란드	13	13	13	=	61.5

한국은 조사대상 66개국 중에 8위로 전체 지수가 64.1점으로 평가되었고 1위 미국과 비교하여 전체 지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주변국의 경우 대만은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우월한 것으로,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지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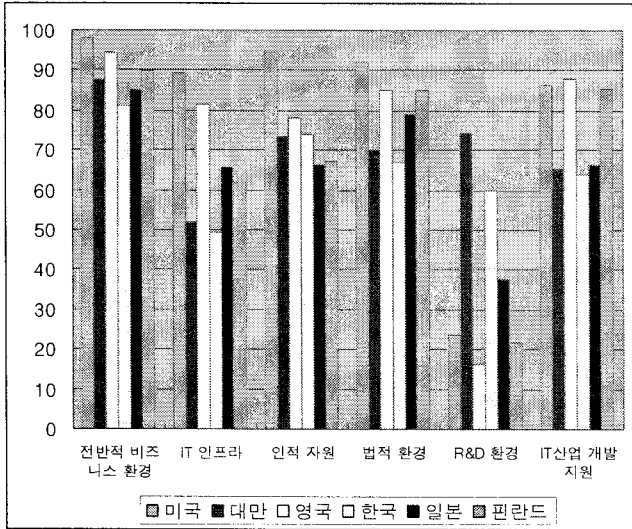
평가 지표 별 성과

2008 IT 산업 경쟁력 세부지수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표7]과 같다. 한국은 R&D 환경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IT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법적 환경과 IT 산업 개발 지원도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표7] 2008 IT 산업 경쟁력 세부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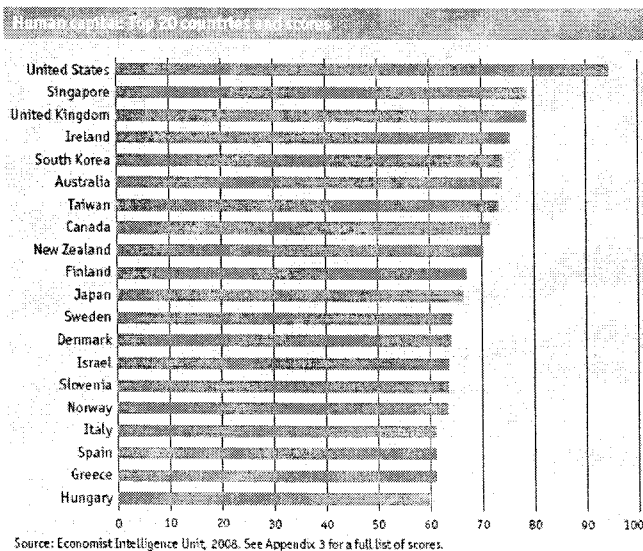
국가	전체 지수	세부지수					
		전반적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 자원	법적 환경	R&D 환경	IT 산업 개발 지원
		10%	20%	20%	10%	25%	15%
미국	74.6	98.0	89.2	94.5	92.0	23.7	86.4
대만	69.2	87.6	52.0	73.1	70.0	74.3	65.3
영국	67.2	94.3	81.4	78.0	85.0	16.4	87.8
한국	64.1	81.3	49.3	74.0	67.0	59.9	63.9
일본	62.2	84.9	65.6	66.4	79.0	37.6	66.4
핀란드	61.5	89.7	61.8	67.2	85.0	21.8	85.2

비교대상국들을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미국과 대만, 영국, 일본, 그리고 핀란드로 한정하여 세부 지수 별 비교를 해보면 R&D 환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미국에 비해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거나 부족한 세부지수들이 있으므로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수가 매우 우수함에 비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R&D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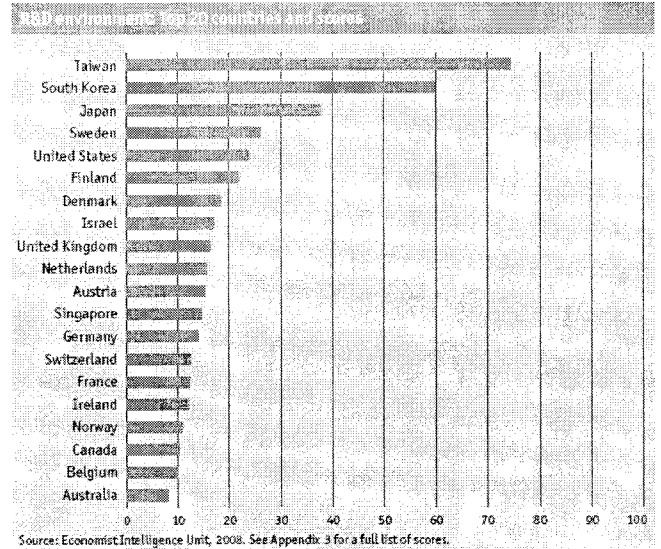


[그림4] IT 산업 경쟁력 국가별 세부지수 비교

전체 평가대상국에 대해 각 세부지수 별로 상위 20 개국을 나열해보면 한국은 인적 자원 지수와 R&D 환경 지수에서만 상위 20 위에 포함이 되며 여타 세부지수들은 아예 순위에도 들지도 못하였다.



[그림5] IT 산업 경쟁력 - 인적 자원 순위



[그림6] IT 산업 경쟁력 - R&D 환경 순위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 순위 하락은 2008년에 새로이 중요하게 포함된 IT 특허 등록 관련 지표에 대한 낮은 평가와 관계가 있으며 경쟁국 대만의 경우와 비교가 된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IT 인프라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으로 특허 획득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ITRC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References

- [1] UN (2008).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8*.
- [2] EIU (2008). *The 2008 e-readiness Rankings*.
- [3] EIU (2007). *The 2007 e-readiness Rankings*.
- [4] EIU (2006). *The 2006 e-readiness Rankings*.
- [5] EIU (2005). *The 2005 e-readiness Rankings*.
- [6] EIU (2008).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8*, BSA
- [7] EIU (2007).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7*, BSA
- [8] WEF (2007).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6-2007*.
- [9] ITU (2007). *World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07*.
- [10] 한국전산원 (2008). *2008 국가정보화백서*.
- [11] 한국전산원 (2007). *2007 국가정보화백서*.
- [12]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 *2007 e-비즈니스백서*.
- [13]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6). *2006 e-비즈니스백서*.